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 총력

익산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시설 활용키로

익산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미래 신종 감염병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지난 8일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과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방문해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시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생물안전차폐시설(ABSL-3)을 보유한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시설 활용으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기존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활용해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을 설립할 시 국가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신속하게 국가 인수공통감염병 관련 전문연구소(분원)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인수공통감염병연구소 주변 넓은 부지는 추가로 감염병 연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K-바이오 산업 유치가 가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은 K-방역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포스트 코로나 대책의 일환으로 미래 신종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며 "이를 통해 감염병연구 관련 신산업 창출 등 국가 감염병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신종 인수공통감염병 출현의 위험성은 여전하며, 이에 따라 관련 연구 중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는 인수공통감염병의 한 종류로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AI(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등 사람에게 최근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약 75%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민문화관 도시재생 '프로젝트 거인의 잠'

운영자·설계자 공모 사전 절차 진행

군산시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산시민문화회관의 운영자 선정 및 설계자(리모델링) 공모 사전절차를 진행한다.

시는 오랫동안 방치된 시민문화회관이 전시·공연 등의 수동적인 공간에서 진정한 '시민' 중심의 차별화된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도시건축분야 국책연구기관인 건축공간연구원(AURI)과 손을 잡고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현장 연구, 지역조사, 운영 및 시설기획, 공간활용도 실험을 위한 시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해오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운영력과 기획력, 창의력과 자본력을 갖춘 민간을 운영에 참여시키고 수익금 일부를 시설 운영에 재투자하는 민관협력형(ppp) 도시재생 사업방식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을 위탁 추진 중인 건축공간연구원은 운영자의 기획 의도에 맞는 시설 공사를 위해 설계자와 운영자를 동시 공모할 계획으로 오는 14일 팔마예술창고극장에서 운영자·설계자 공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예비' 지원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서는 ▲공모지침 내용 ▲운영자·설계자 평가지표와 더불어 공모에서 1차 서류 평가 이후 2차 심사로 진행될 ▲'사회실험'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문화회관의 운영자·설계자 공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예비' 지원자가 직접 평가지표를 제안해, 보다 적합한 방식의 공모를 설계해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시민문화회관 재생사업을 담당하는 건축공간연구원 윤주선 부연구위원은 "보통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공모의 평가 지표는 학자, 공무원 등 특정 전문가 집단이 정하기 때문에 피 평가자들은 그 기준이나 근거를 알기 어렵다"며 "시민문화회관 재생사업은 '민관협력형(PPP)' 모델을 적용하는 만큼, 운영을 희망하는 민간인 당사자가 직접 '게임의 룰'을 설계해 그 룰 대로 자신의 역량을 선보이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획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실시

최근 20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며 군산시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9일 백종현 군산시 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20대 확진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확진자의 발생원인은 타지역 확진자 접촉자, 확진자 접촉자, 발생원인 조사 중 등으로 식당과 주점 등을 방문하며 전파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감염되는 돌파감염 사례가 있는 만큼 다중시설 및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20대 주로 이용하는 유흥시설과 음식점 등 방역취약시설 및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강력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염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단,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운영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유흥시설, 노래방 등 다중시설에는 주기적인 환기 소독과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관리에 대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

백 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졌지만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나 칸막이 설치 등의 조치가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면서 "이번 주말 불요불급한 약속 및 외출을 자제하고 수도권을 비롯해 타지역 왕래 등 이동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익산지역 16개 고등학교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교·대학 프로그램 연계

원광대, 익산지역 16개교와 상생 모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와 익산지역 16개 고등학교가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8일 원광대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박맹수 총장과 16개 고교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원광대와 협약에 참여한 16개 고교는 지역 내 대학 진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구체화 하고, 실행계획을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원광대와 지역 16개 고교는 ▲전공체험 및 협동 강의를 통한 상호 협력,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연구,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수학습 협력체계 구축, ▲학생들의 진로교육, 인성교육, 상담 활동을 위한 초청강의 등 인력풀 운영, ▲대학시설 사용 및 첨단장비 활용 체험학습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체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과 지역 고등학교는 코로나19를 뚫고 미래세대의 교육을 이끌고 있다"고 강조한 박맹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같은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으로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고민한다는 점에서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초중등교육 없이 고등교육이 존재할 수 없듯이 교육생태계가 선순환 되고, 지역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고교와 대학 간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익산지역 고등학생들의 지역대학 진학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고교의 노력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재훈기자

익산시, 재난·사고 구조위치 증설·일제조사

익산시는 국가지점번호판 40개를 배산공원 등산로, 용화산 등산로, 천호산 편백나무길 등 등산로 주요지점에 추가 설치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 강화에 나섰다.

국가지점번호는 건물이 없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산악지역, 해안가 등에 조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건물이 없어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의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한글 2자리, 숫자 8자리 등 10자리 고유번호가 표시된 안내판이다.

현재 익산시는 재난이나 응급상황 발생 예상지역에 2017년부터 미륵산 및 함라산 등산로 일원에 국가지점번호판 57개를 설치를 시작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주요 등산로와 자전거도로 등에 총 235개를 설치 완료했다.

또한 시는 집중호우, 폭설 등 재난상황 발생을 대비해 국가지점번호판 조사반을 구성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설치된 관내 국가지점번호판(공공기관 설치분 포함) 317개소를 이달부터 2023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민간위탁의료기관 화이자백신 현장교육

익산시는 7월부터 시행하는 화이자백신접종에 대비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75개소 백신·접종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현장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화이자 백신 취급과 안전한 접종을 위해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화이자 백신 접종방법, ▲아스트라제네카 등 다양한 종류의 백신별 보관 및 관리 ▲오접종 방지 ▲이상반응 및 응급상황 대처방안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집중실시했다.

시는 미개봉 상태로 냉장 온도인 2~8℃에서 최대 1개월간 보관이 가능해진 화이자 백신 취급 조건 정부의 완화 정책에 발맞춰 이번 현장교육을 실시해 병·의원에 위탁, 백신 접종이 가능해진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선유도해수욕장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군산시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선유도해수욕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건강한 소비문화 확산과 즐거운 피서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됐다. 선유도주민통합위원회, 공무원, 소비자단체와 물가모니터요원 등 30여명이 참가해 바가지 요금 근절과 친절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시는 선유도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9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특별물가점검반을 편성하며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자 피해방지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가안정 내용을 알리고 자율가격표를 배부하며 음식점 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수칙 및 식중독 예방안내, 친절한 손님 응대 등 홍보물 등을 배부하고 종사자 교육도 병행한다.

/군산=한경봉기자